

新興 - 1931. 12. 20.

新헤-겔主義와其批判

申南澈

(이것은去十一月十四日 헤-겔百年祭記念講演會에서 한講演의草稿이다. 나는本誌前號에서 「헤-겔百年祭와헤-겔復興」이란題로比較的仔細한吟味를하라고企圖하였고 「칸트學派에잇서서헤-겔復興」은本號에서完結하라고하였던것이다. 그러나텍스트는다일거노코서도 그것을가다듬을사이가업시된나의近日의生活이限업시된다. 負擔된原稿의貴을免키爲하여 이未備한草稿를 字句도변변히修正하지못하고내놓는厚顏을 스스로도大膽다고생각한다. 十一月十八日 病院에서도라온뒤에)

우리가흔히 「헤-겔」이라고말할때는 思想史上或은哲學史上에잇서서한개의 다른누구보다도더두드러진存在를意識하는것이니 그것은무엇때문이며 또왜그런것인가를생각하여보지안을수가업다. 다른數만흔哲學者가古往今來二千五六百年間가지가지의形態로써 우리의앞에그들의자취를남기고갔스나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또는 「토마스.아퀴나스」라든가의偉大한思辨的 概念論的哲學者에게서보다도 또는近代思想의獨逸的完成者로서의 「칸트」에잇서서보다도 「헤-겔」에잇서서는以上の말한思想家에서자져보지못하는一種의緊張된興奮된무엇을느기는것이니 「헤-겔」이우리와갓가운時代的距離에있다는것보다도그곳에는반듯이이저서는아니되는 重要な무엇이무쳐잇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그러면그重要な무엇이라는것은무엇이나?그것은나의이論述全體가表明할줄믿는바이나爲先먼저그重要的 우리로하야금 「헤-겔」에잇서서두드러진무엇을意識하게한다는點을말하면 「헤-겔」에잇서서의歷史的社會的意義-그意義와나누지못할緊密性을가지고잇는 「헤-겔」學派의分裂과, 「맑스」와 「엔겔스」가繼承하야純化發展한現今의푸로레타리아의世界觀으로서의戰鬪的唯物論의歷史的意義라는것이다. 「헤-겔」의巨大한學說과體系를이곳에쓰지머낸다는것은到底히不可能한것임으로 오직이制限된時間안에서 우리의現實的生活과가장親密하게交涉하는듯이보이는 우에말한點을簡單히이약이함으로써이講演의出發點을삼으려는것이다.

一, 헤-겔學派의分裂과그後의狀態

「헤-겔」哲學이그의사러잇슬새에얼마나한勞力을가짓섯고또當時의政府에對하여 어셔한忠誠을다하얏다든가하는點에對한歷史的論述과理論的吟味는지금의問題가아님으로 그만두고 다만 「헤-겔」의學說이 三派로分裂된原因은어데잇섯든가?

그의歷史的世界觀과辯證法的方法論의넬븐마당안에는「푸로시아」의支配階級이 「헤-겔」의哲學을그들에게融通性잇는國家哲學으로삼으라는속뜻을가지고「헤-겔」의觀念的建物을至極히擁護함에對하여 他方으로는政治的으로宗教的으로在來의觀念的傳統에對하여反逆하여「헤-겔」의全體系를一層높은統一에올려서 써「헤-겔」과그以前의諸哲學的方法을그에게잇서서의가장重大한辯證法的發展의連關안에서取扱하려는自由主義的傾向이나타나게된것이였다. 이傾向이「헤-겔」哲學을그自身의方法으로부터反省함에必要로한補充은即「헤-겔」의觀念的인것에對하여經驗的—換言하면唯物的의方面으로부터가져오게된것이였다. 그리하여이點은必然的으로宗教哲學의問題와關連하여 오는것이니「헤-겔」에잇서서의思惟와信仰은結局調和되는것이라고볼수잇섯스나 그에게잇서서 神의人格성과人間령혼의不滅이어느程度까지承認되겟느냐하는點에서 그들은一大困難을늦기지안으면아니되게되얏다. 「헤-겔」自身의學說로서는어느쪽으로나說明이되는것이얏스나 이點을契機삼아「헤-겔」의學說은分裂되고만것이다, 그리하여異端的, 汎神論的, 唯物論的學徒를左黨이라고하고正統的有神論的唯心論的學徒를右黨이라고부르게되얏다. (이두學派外에 에드워드·첼러, 쿠노·피셔等의中間黨이잇슴)

이제우리의가장만흔關心을이쓰는것은左黨이니「스츄라우스」와「포이엘바하」가그總帥格이얏다. 이左右兩黨의論爭은激烈히展開되얏고 左黨의宗教批判은政治上의自由主義와結合하여實踐的役割에잇서서 이저버리지못할重大性을가지고잇는것이다. 썬만아니라理論上의問題의觀點에서보더라도「포이엘바하」를中心으로한「헤-겔」左黨이如何히重要한것인가도이곳에서거듭말할必要를늦기지안는바이다. 짜라서「포이엘바하」의學說에對하여 이곳에서若干의考察을하지안으면아니될줄이나 나는빛비나의問題에드러가기爲하여 다만「엥겔스」의有名한著作『「포이엘바하」와獨逸古典哲學의終焉』에關하여二三이약이하고말라한다.

(a) 「포이엘바하」와獨逸古典哲學의終焉

十八世紀에잇서서 저큼지막한쑤르조아革命이佛蘭西에서完成된것을생각할새 우리는 그革命의先驗인啓蒙思想을이저버리지못할것이다. 啓蒙的思潮가唯物論的인것은必然的傾向이다. 이啓蒙思想도 必然的으로唯物論的이얏스니 十八世

紀의佛蘭西唯物論이 어찌하여 그革命과密接한關係를가졌스며 「포이엘바하」以後의辯證法的唯物論—觀念論의哲學者들에게 온갖中傷과誹謗을바드면서도쫓쫓하게그것의길을거러가고잇는—이 「푸로레타리아」의理論的武器로써 어찌하여現代의大衆에게迎合되고잇는가를생각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啓蒙의時代—그것은 한歷史的形態에서부터 다른形態에의辯證法的發展의過渡이니 아직哲學的自覺의成熟하지못하든希臘의넛날에잇서서의宇宙論的時代는말할것도업고 近世初頭의文藝復興時代에잇서서의自然哲學을생각하고 다시十七世紀中葉以後로부터十八世紀最後의三十年頃까지의啓蒙哲學時代를생각할때이時代에잇서서는목은秩序는그歷史的任務를마치고 바야흐로 새로운出生에게그地位를물려주지안으면아니되는것이얏스니 그地位의轉換에는반듯이大衆의實踐的關與업시는實現하는것이아니였다. 文藝復興時代에잇서서의 人主文義運動 (나는在來의哲學者들과가치解釋하려고하지안는다) 이라든가十七八世紀의啓蒙哲學時代에잇서서나 다새로운形態, 새로운社會秩序에로轉化하려면은 그곳에는唯物論的實踐的役割이업시는成就하지못하는것이얏다. 觀念論的態度에잇서서는實踐的行動은그것의理論的構造를박하지안는다. 그럼으로唯物的—더구나그것이辯證法的으로唯物論的일때는局部的의아니라 包括적으로 特殊만이아니라全體를社會的歷史的連關에잇서서把握한다.

이가티歷史的理解에잇서서唯物論的 더구나 辯證法的態度는언제나一面的일수가업는것이다. 그것은全體包括的의이다. 이러한見解를가지고 「엥겔스」의上述한著作을對할때 그리하여 그의 「헤-겔」解釋과 「포이엘바하」의獨逸古典哲學—換言하면獨逸理想主義哲學에잇서서의最後의모양을想像할수잇을것이다.

「포이엘바하」의唯物論—그의 「將來의哲學의根本問題」는온갖概念的思辨에宣戰을布告한것이얏다. 이宣戰은어느듯 一八四八年의革命과連關하여 「教養잇는獨逸」은理論과作別하고實踐의領域으로움겨간것이얏다. 獨逸哲學의傳統을形成하는 「스페큐라티온」—思辯의神은哲學研究室에서싸져나와서株式取引所저의殿堂을싸케됨으로부터 獨逸의光榮이든偉大한理論的傾向은 「教養잇는獨逸」에서사라져마리고만것이얏다. 그러나勞働階級에잇서서만은 그理論的傾向은사라지지안코남아잇섯다. 이勞働階級은地位나權威를考慮함이업시學問의正當한意義를그들自身の向上과解放을爲하여理解하라는것은最初부터勞働階級이얏다. 그리하여獨逸의勞働者는實로獨逸古典哲學의繼承者이얏다.

以上과가티獨逸의理想主義哲學은 「포이엘바하」에서끝을막고勞働階級의解放運動이 새形態에로繼承發展식힌것이얏스나 이제新칸트學派라는것이大學研究室속에서 외쳐지게되얏스니그形態는어찌하얏든가—.

(b) 新칸트學派의勃興과 「죽은개」로서의 「헤-겔」

나는新칸트學派의發生한社會的及理論的根據를이곳에서究明할時間을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新칸트學派는이러이러한모양을가지고나타났다는事實을 簡單하게말함에긋치려한다. 그리하여 맞비 나의問題를 이자리에서論하지안으면 아니된다.

大體로新칸트學派라는것을얼는아라듯기쉽게말하자면 一七二四年으로부터一八〇四年까지의生涯를가진 「이마누엘-칸트」의哲學의批判的精神을다시쓰지버 내서 그것을發展시키라는哲學上의一派를일컫는다. 그러면 왜 이一派가나타 나게되었는가하는疑問이생길것이나 그것은얼는말하자면所謂「俗學的唯物論」이라고욕을하든勞働階級의理論의양식이든辯證法的唯物論에對한排擊으로서 그排擊의根據를「칸트」의先驗的方法이라는새方法에서求하게된것이였다. 勿論이點에對하여서는이가티簡單하게말할수없고또그러하다가는잘못에빠지기도쉬우나 大體로이러케말해야큰過失은업슬줄민는바이다.

最初에이新學派의旗幟를鮮明히한사람은「리부만」이얏스니十九世紀中葉에 「칸트와其亞流」라는著書を내고서『칸트에도라가라』고외쳤든것이다. 이 『칸트에도라가라』는말은新칸트學派의다시업는標語이얏스니 이標語밑으로 一群의哲學者들은모여들기始作하였다. 「랑게」의「唯物論史」가「리부만」의 著書보다一年늦게나오게되자 이新칸트學派의黨派의性質은確定되고만것이다. 이點을가지고보드라도哲學에잇서서黨派性의問題는解明될줄로아나 지금의 課題가아님으로그만두나 如何間이新칸트學派가들의階級的任務를다하기爲하여 한개의哲學的潮流를形成하였든것이다. 이것을第一期新칸트學派라고하면은 「알로이스-틸」(푸라이볼그等여러곳의大學教授를歷任한)의「哲學的批判主義와그實證科學에對한意義」라는著書を契機삼아 第二期新칸트學派의形成을보 게되었스니 우리가흔히新칸트學派라고할때는第二期의것을이름이다. 이第二期 新칸트學派에잇서서는두개의學派가對立하게되었스니 하나는말부르그學派요 다른하나는싸텐學派이다.

이가티하여新칸트學派는그들의勢力을싸아나가는한편으로積極的으로맑스學說의克服을희하게되었스니 이것이所謂新칸트學派社會主義라고하는 여러분의 잘아는修正主義이다. 이것으로써이新칸트學派의社會的階級的任務가奈邊에잇 는가를잘알줄이나 이러한哲學界及一般思想界의混沌한霧圍氣에서「헤-겔」에 關한興味가次第로두터워가게되었스니 그것은무슨싸담이였든가. 여기에는반듯 이理由가잇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헤-겔」學派의分裂以後「헤-겔」의學說의全盛에對한反動으로 그의學說은거의一般思想界의中心에서떠나잇는것가티 보였든것이다. 卽「리부만」等の『칸트에도라가라』라는슬로강이象牙塔속에

서요란하게 외쳐져 나오자 모든御用的學問機關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려 든 것이다. 그리하여 「헤-겔」은 이제에 있어서 「죽은개」가치取扱을 바꿨는 것이다. 그러나 「맑스」의 일은 바 「죽은개」로서의 「헤-겔」이다 시사라 나게 되얏스니 이곳에 所謂新헤-겔主義의 싹이 트게 되얏다.

二, 新헤-겔主義의 擡頭와 其社會的 根據

아에서도 말하얏스나 『칸트에 도라가라』라는 슬로강이 이新헤-겔主義의 勃興에 있어서 『헤-겔에 도라가라』라는 標語로 바뀌게 되는 同時에 이곳에 있어서 「헤-겔復興」(헤-겔 두네쌍쓰) 이 唱導되얏스니 이 두가지 슬로강은 그 本質上 差異가 있는 것인가 업는 것인가 우리는 爲先 이 問題를 決定하고 當面의 問題로 드러가 지안 으면 아니 될 줄 믿는다.

(a) “Zurück zu Kant” 와 “Rückkehr zu Hegel” 의 異同

『칸트에 도라가라』라는 標語의 社會的 歷史的 根據에 對하여서는 上述 한 바와 가트다. 即 資本主義가 一八七〇年 普佛戰爭을 고비 삼아 國家權力과 緊密한 結合을 하면서 그것의 無統制한 發展을 마련하고 잇는 時代에 있어서 그 時代의 支配的인 이데오로기로 新칸트學派의 『칸트에 도라가라』라는 標語가 외쳐지게 되엿는 것이다. 그러나 時代는 한 자리에 踏步를 부르고 잇지안다. 그 百花亂爛하든 資本主義가 그것의 絶頂을 넘어서서 그 内部의 矛盾 때문에 디디어 무너지기 始作하자 그것의 觀念形態도 싸라서 무너지지안 으면 아니 되게 되엿다. 그리하여 『칸트에 도라가라』의 슬로강은 一時의 姑息의 手段으로 『헤-겔에 도라가라』의 슬로강으로 變裝하고 나왔다. 그러면 어째서 何必 「헤-겔」에 도라가라고 외쳐지게 된 것인가. 나는 이點이 「헤-겔」을 研究하고 批判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인 줄로 믿는 바이다.

우리는 헤-겔을 正當히 理解하고 把握하지안 으면 아니 된다. 그리하자면 「이리치」의 말 한 바와 가티 「헤-겔」을 唯物論的으로 압지안 으면 아니 된다. 그리하여 그에 게 있어서 重要한 모멘트인 否定의 理論的 實踐의 把握을 必要로 한다. 헤-겔의 學說은 원갓것을 다 包含한다. 이것을 觀念論的으로 理解하는 때보다 唯物論的으로 理解할 때 그것은 非常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 나타난다. 이제까지의 哲學的方法—即 新칸트學派에 있어서의 大同小異한 認識論을 가지고는 이 巨大繁雜한 現實關係를 完全히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얏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包攝하는(이 말은 獨逸語 all-umfassend라고 하는데 「헤-겔復興」을 論하는 데 잘 引用되는 語句이다) 헤-겔 哲學에서 그들의 싸져나아 갈 길을 차져 보자고 하얏다. 今世紀의 最初十年間에 「헤-겔」에 對한 關心과 그 復興에 對하여 기름을 부은 두가지의 著書가 나타났스니 하나는 「월 헬름 쉐타이」의 「헤-겔의 青年時代傳」이요 다른 하나는

「휠헬름, 빈델반드」의 「헤-겔主義의再興」(이것은演說이였스나나중예出版되얏다)이얏다. 그러나이두가지著書는나의지금말하려는新헤-겔主義의勃興에對한原因의 하나는될지나直接으로 이新헤-겔主義의勃興에對한近因으로서의拍車는되지안으리라고생각한다. 如何間이두가지의著作이 設使그作者에게잇서서는 헤-겔復興의氣運에對한何等의意識的企圖를가진것은아니엇겟스나 그들이 헤-겔을다시吟味하여보게된動機는반듯이以上에말한點에잇슬줄생각하는바이다. 그리하여哲學界의主潮는다시 「헤-겔」의對한關心으로밀려나려오게되엇다. 廣義의 「헤-겔復興」안에너을수잇는이 新헤-겔主義는그러면 어셔한方法과方向을가지고잇는것인가. 新칸트學派가이러나가지고 「칸트에도라가라」라고외친것과가티 이新헤-겔學派或은新헤-겔主義도그一般의意味에잇서서의社會的根據를同一히한다. 「칸트」의啓蒙哲學時代에對한關係와 「헤-겔」의獨逸理想主義哲學에對한位置는거의가트다고볼수있다. 「칸트」와 「헤-겔」은가티一定한時代의最高의이데오로기的高塔이엇다는點에서 그리하여그高塔을向하여 그의뒤에오는사람들이 한 개의길을닥그라고하얏다는點에서 이二人의思想家는共通性이잇는것이다. 그러나그共通性은다시本質的으로다른時代的意識를가지고잇는것이니이것은歷史發展에잇서서의 辯證法的一契機를짓는것이다. 「칸트로도라가라」를資本主義의成熟期에잇서서의反動的標語라고할것가트면 「헤-겔에도라가라」는 資本主義沒落期에잇서서의反動的슬로강에지나지못한다. 이點을우리는念頭에두고서이二人의哲學者를對照하지안으면아니된다. 그리하여 「헤-겔에도라가라」라는標語를내걸고나온 「헤-겔復興」을외하는 新헤-겔主義의거리갈方向은그러면어데냐?하는問題에對한解答은自명한것이라하지안으면아니된다. 「헤-겔」復興이觀念的哲學界에서 宣傳되고잇는것가티 그러면 「헤-겔」哲學의現代에對한意識가評價될것인가?지금의問題되야잇는 「헤-겔復興」을외하는新헤-겔主義는 그目的과指標가意識的이든지 或은無意識的이든지 如何間 「헤-겔」의美名下에맑스主義를修正하고排擊하려는底意와行動으로나타나는것이다. 이點은 마치 칸트主義에서新칸트派社會主義가일어난것과가트다. 「맑스」가哲學史上에잇서서의 「칸트」의地位를 「佛蘭西革命의獨逸的理論」이라고하여 그의남기고간자취를好意로評價한것가티 「헤-겔」의偉大한思想的高塔도 「푸레하노푸」等에依하여 「思想史上에잇서서當然히또永久히第一流의位置를占할사람」이라고우러러진것을생각할새이두사람의哲學者는조흔對照를이르고있다. 그리하여이두사람의뒤에외쳐진 두가지의슬로강을볼새 싸라서이슬로강을歷史的社會的事象과가티理解할새 그곳에는嚴然한이데오로기-觀念學的黨派性을看取할수잇슬것이다.

이가티하여 「헤-겔復興」에잇서서의 「헤-겔」에對한關心이新헤-겔主義를形

成하기에有力한 刺戟劑가된것은다음의네가지演說이였스니 卽

一, 「세울그랏손」의 『헤-겔主義란무엇이나』

二, 「하인리히·술쓰」의 『現代의哲學的思惟에對한헤-겔哲學의意義』

三, 「지그푸리드·말크」의 『헤-겔主義와맑스主義』

四, 「하인리히·레비」의 『獨逸哲學에잇서서의헤-겔復興』 이그것이다. 이네개의演說은 「新헤-겔主義」라는名稱이생기기에한有力한原因은될지나 아직우에말한新칸트學派에잇서의形態와가튼嚴密한意味에잇서서의한개의學派—스쿨을形成하기에는이르지못하였다. 아나이新헤-겔主義라는것을한개의그것을信奉하는 學派라고생각하여야서는아니된다. 이것은 「헤-겔」의哲學的精神을現代의哲學的方法에復興시켜보려는方法論的運動이니 이것은現代에잇서서의여러가지哲學的分派의內部에서일어나게된것이다. 이것은 그들의獨善的方法으로서는 充分히歷史的存在又是社會的存在 나아가서는人間그것을分析記述하고理解把握하는데에不滿을느낀것을意味하는것이니 그리하여그들은 「헤-겔」의모든것을包含하는方法에救援을講하게된것이다. 이가티하여 「헤-겔」에關한著述이非常히만케되고또그들은 「헤-겔」을 「저이의것」이라고부르고있다. 그러나그들新헤-겔主義에잇서서云謂되는 「헤-겔」은卽그들이 「헤-겔」에서가져오는것은 「헤-겔」에잇서서의反動的인것이고 그에게잇서서의生々한發展的이고力學的인思惟는아니다. 그들은辯證法을採用은한다. 그러나그것은 「헤-겔」에잇서서보다도더具體的生命을써서버린方法論의한끈아불에지나지안게되었다. 이제新헤-겔主義의諸形態를보건대

(b) 新헤-겔主義의諸形態와그共通性

우에서도말한바이지만 이新헤-겔主義의모양은事實로形形色色이니 그것은이新헤-겔學說의成立의動機卽 其것의國民的 社會的乃至精神的傳統的地盤에依하여多種多樣的形態를가지고나오게되었다. 그리하여이新헤-겔主義의안으로編入되는學者의範圍도自然히一定하여야하는것이아니다. 이제 「하인리히·레비」의 『獨逸哲學에잇서서의헤-겔復興』(一九二七年)이란책에依하여 新헤-겔主義의모양을살펴보건대大別하여두가지方向으로나눌수가잇는듯이보인다. 卽하나는生의哲學에잇서서의헤-겔精神의復興이고 다른하나는新칸트學派에잇서서의헤-겔復興이다. 이두가지哲學說은서로容納되지안는方法과傾向을가지고잇는것이나 서로 「헤-겔的綜合」의길을거러갔다. 이두가지潮流의 「헤-겔」에의接近의事實은한개의이저서는아니되는事을表明하는것이니 그것은卽맨끝으로말하려는 「哲學에잇서서의팻쇼化」의事實을表示하는것이다.

그리하여이新헤-겔主義의範圍안에드는哲學者中의重要한몇을列舉한다고할것

가트면 第一生의哲學에잇서서는「에드워드.스푸랑거」「데오돌.리트」「한스.푸라이야」「에른스트.트윙치」等을말할수있고 新칸트學派에잇서서는다시말 부루그學派와 싸덴學派로나뉘는것이니 말부루그學派에잇서서는「파울.나돌푸」「니콜라이.할트만」「아돌.리벨트」等을들수있고 싸덴學派에잇서서는「에밀.라스크」「쾨르노.싸우호」「리할드.크로너」「요나스.콘」等을말할수 있는것이다. 其外에「지그푸리드.말크」「크로체」「루카치」「하.글록크너」等數만흔學者들을列舉할수잇스나 우리의알고자하는바는그것이아니고 그들의「헤-겔」에도라가서새로운理論의體系를세워보자고하는싸담은 무엇이냐하는點일것이다. 나는各學派에잇서서의理論의構造를이자리에서吟味하는餘裕를가지지못하얏다. 그러나大綱, 各人에게共通되는듯이보이는것을두어개지버내보 건대

第一로 이새까지의哲學—그것은一般的으로新칸트學派를中心으로한認識論의方法에始終한것이얏스나—은主로認識의根據와限界를究明하는데에沒頭하야 人間生活에잇서서의具體的經驗的事實에對하야等閑하얏든것이다. 이事實을그들新헤-겔主義의哲學者들은 어셔한形式으로든지打開하야人生과人間그自體의現實的存在를理解하고 그리하야文化—階級社會에잇서서의資本主義의文化에對한形式的理解가아니라 內容的理解를가져보라고되한것이라는點이다. 그럼으로이新헤-겔主義는언제나形式主義를排斥하고 形式과內容 或은概念과存在와의一致를主張하게되였다. 「헤-겔」에依할것가트면內容업는形式은잇지안타. 아니形式그것이存在이고 存在그것이벌서한개의概念이엇든것이다. 이곳에「헤-겔」의存在論또는形而上學的傾向이숨어잇는것이다. 이點은觀念論인同時에實在論이라고도생각할수가있다. 이두가지는다「헤-겔」에잇서서는止揚된것이다. 新헤-겔主義는이點에依據하야 그들의文化哲學存在論又是人間學이라는것을세워보려고하는것이다.

第二로 그들에게잇서서의 社會的任務는무엇이냐하는點即 그들은理論과實踐과의完全한一致를맑스主義에서보면서—이두가지의辯證法的一致를「헤-겔」의眞意에맞는發展이라고보면서 맑스主義에잇서서의唯物論的根據를 粗朴한經驗的實證的物質一元主義라고攻撃하야 맑스主義를獨斷이라고거리낌업시말하는點에서大體로一致하는것이다.

이두가지點에對하야서는더切實하고明確한批判을할수잇는것이나 이곳에서는그時間을가지지안엇다. 要컨대 現代에잇서서의新헤-겔主義는 生活의形態—그것은一般이다아는現代社會의階級的으로規定되야잇는—를다만認識할뿐이아니라 그것을 改新하는—Verjungen—進歩的의學者들의企圖하는바가아니라 支配假面을쓰고서改新하는 싸라서 바야흐로오는새것에對한滅亡하지안으면아니될목

은것을 積極的으로擁護하려는企圖에 지나지안는것이다.

新혜-겔主義에對한나의가초지못한考察은이것으로써 窸마그라고하나 最後로
우에서말한바 哲學界에잇서서의「파쉬즘」의問題에對하여 二三言及하지안을
수가업다. 더구나 이新혜-겔主義를論 하는限혜-겔聯盟에關한簡單한두어마디
를말하지안을수가업다. 그것은昨年四月和蘭하-그에서最初의혜-겔會議가開催
되고 그곳에서이聯盟이 成立된것이니이혜-겔聯盟은各國의新혜-겔主義者들이
會集하여 한개의結成된聯盟의形態下에서 그들의以上에말한社會的任務를遂行
하려고하는것이다.

(c) 現今의問題와哲學

이혜-겔聯盟은「혜-겔의精神에依하여哲學的研究의氣運을捉함」이라는뜻도
를가지고나왔다. 그러나그것은다만表面上장식에지나지안는다. 이것은哲學界
에잇서서의과소化的問題를提供하는것이니 이데오로기에잇서서의黨派性을너
무도明白하게表示하는한具體的例示에不過하다. 「現代의文化는스칠줄모르는
解體의過程에서理解된다. 그進展은그沒落이다」이말은「펠디난드.되니스」의
말이다. 歷史的過程은 永久한것, 普遍的인것, 絶對的인것을認定하지안는다.
史的唯物論에서말하는社會的, 歷史的現象의生長, 發展, 消滅의法則은한개의例
外업시, 우리들의世界觀의鐵則이다. 新혜-겔主義가支配階級の理論的反映으로
서한개의反動的〔役割〕을思想界에서하며 現代에잇서서의尖銳化한社會的矛
盾을머리속에서克服하라고한다. 그리하여 그들의提供하는理論은支配階級에採
用되야 그들을爲한實踐에서適用된다. 그矛盾은實踐에잇서서는 一時的으로 强
制的인「과쉬즘」의獨裁에依하여無力하게되기는할것이다. 그러나그矛盾을全
然除去하지는못할것이다. 되리어 더욱더욱尖銳化식히는 拍子가될지언정. 이
矛盾의克服은哲學書의 文字에잇서서가아니라 辯證法的으로飛躍的으로 遂行
되는 現實에서만 새로운綜合을가져올것이다. 現在에잇서서의法律哲學의理論
이金融資本의파쉬스트的支配를反映하고잇는것가티 이 新혜-겔主義의넓은視
野안에도러오는有象無象의哲學的理論도現實의가지가지機構의統一的인最高의
觀念形態로써과쉬즘化하는傾向을가지고잇는것이다. 나의이말이正當한말인지
는모르나 希臘의옛날에잇서서의神話가아니라 二十世紀에잇서서의神話 洗鍊
된論理的構造를가지고現實的諸矛盾을더푸누르라고하는 窸소리니의神話가哲
學界의一隅에서 一大勢力을휘두르고있다. 그러면우리는이神話를그냥神話로써
내버려둘것인가. 斷然코否! 우리는그神話를아러야만한다. 우리는이新혜-겔主
義가무엇인가를알아야만한다. 이럴치의말과가티「敵의狀況을알려면敵의나라
에가지안코는모른다」우리는이新혜-겔主義의理論的構造와根據를알지안으면

아니 된다.